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2024 KEPCO의 자기소개서



나는 [ 렌즈 ] 이다

렌즈는 안경, 현미경, 우주망원경처럼 크기도, 용도도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빛을 모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미경이 사우분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규정과 문구의 세세한 부분까지 찾는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주에서 분명 빛나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별빛을 모아 먼 우주를 보는 렌즈처럼, 사보가 우리 회사의 숨어 있는 빛나는 사우분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히어로들이 발견되어 인정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대구본부 에너지효율부 채민기 대리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i am

20  
24  
09  
september  
vol.615

몰입하 여  
F L O W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다



실을 엮어내듯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이들,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이 물결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찾아내어  
그 가치가 내일의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미래를 빛습니다.

here i am, i am KEPCO

i am



통권 615호 2024년 9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4년 9월 10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백수현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21, 5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큐라인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4 ESSENTIAL KEPCO  
AI 시대, 명장의 가치

10 TIMELINE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노력해 주길”

12 LIGHT  
급변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 회사의 노력

16 K-INFO  
미리 알아두자!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18 ZOOM-IN  
2024 파리올림픽,  
은빛 영광의 주인공을 만나다  
- 김원호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  
김상훈 평택지사 차장

20 SITE  
총 규모 978MW ESS 건설사업 마침표!  
- 부북변전소 ESS 준공 현장을 가다

24 GREENSIGHT  
영원히 지지 않는 나만의 작은 정원  
- ICT운영처 사우들의 테라리움 만들기

28 VIEW

30 WIDE  
‘왕년의 강자’ 모토로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다

32 MIND&U  
‘왜 나만 가지고 그래?’  
- 와이미 증후군

34 CURATION  
山 시리즈 ①  
등산, 정상의 환희를 느끼다

36 TALK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여라  
- 동청주지사 사우들의  
연극 <만리향> 관람기

40 K-CREATOR  
흥이 넘치는 그곳, 뮤지컬 속으로  
- 전북본부 배전운영부 김선재 대리

42 MAGAZINE P  
낮음과 아름다움의 공존,  
- 문래예술촌&영등포전력지사

44 KEEPER  
꿈꾸기 좋은 찬란한 날들  
- 대구본부 에너지효율부 채민기 대리

46 人STARGRAM

48 NEWS

50 ON KEPCO

## AI 시대

## 명장의 가치

名匠

# M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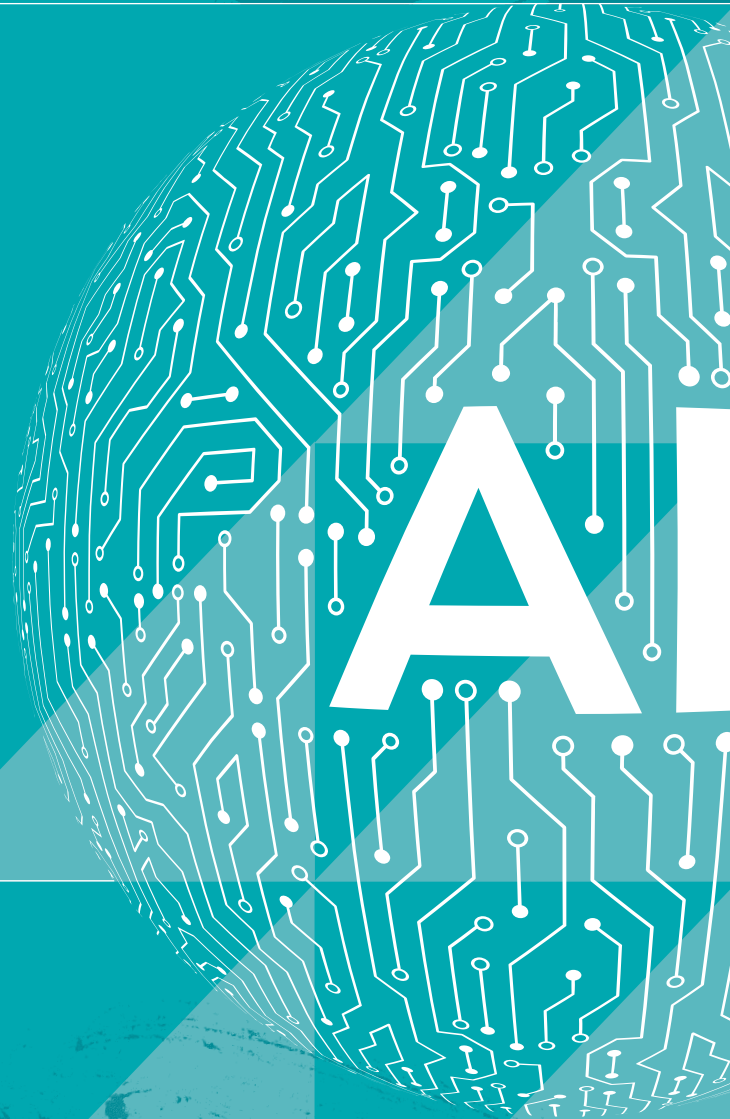
Part 1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문가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AI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전문가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런 시대에서 사람은 자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답을 찾기에 앞서,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을 떠올려 봅시다. 모두가 이세돌 9단의 완승을 예상했지만, 유례없던 묘수를 연속으로 두는 알파고에 이세돌 9단이 패배했습니다. AI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가 목도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대국 이후, 남은 대국도 전패할 것이라는 의견에 추가 기울었지만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 1승을 거두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1승은 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급변의 시대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인간이 해왔던 많은 역할들이 AI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I 시대,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 광풍처럼 몰아치는 AI 시대에서 직장인은 어떻게 전문가가 되는가?



아무리 알 수 없는 세상이라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세상은 불확실하다는 명제다.  
불확실한 세상 한가운데 AI가 광풍처럼  
우리의 삶 여기저기를 파고들고 있다.  
직장인으로서 우리도 AI로 인해 한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놓여  
있다. 불확실하고 캄캄한 미래에도 한  
발자국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나만의 전문성을 가치 있게 만들어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키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 AI 시대의 도래, 어떤 가치가 바뀌나?

AI 시대의 도래로 우리는 스마트 프롬프팅과 AI Reskilling & literacy를 주목해야 한다. 리더십 역량은 시대에 따라 방향성이나 주체성이 달라졌지만, 스마트 프롬프팅과 AI Reskilling & literacy는 AI 시대에 들어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했다. 더는 무턱대고 정답을 찾는 시대가 아니다.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의 시대다. 챗GPT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질이 달라진다. 그처럼 질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 체감해야 한다. 이를 바로 스마트 프롬프팅이라고 한다. 스마트 프롬프팅을 위한 5가지 질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다. ① 연이은 질문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정보를 심층적으로 이끌어내는 조사적 질문, ② 문제를 보다 폭넓게 고민하도록 해주는 추측적 질문, ③ 인재, 역량, 시간 및 자원 등의 가용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산적 질문, ④ 핵심 문제를 재정의하도록 유도하는 해석적 질문, ⑤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개인적 의구심, 긴장감, 숨겨진 의제에 대한 주관적 질문이다. 민첩하고 혁신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현장에서 반짝이는 질문은 좋은 전략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불확실한 미래 속 전문성 제고

AI Reskilling & literacy는 AI 관련 Reskilling 및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과 활용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 AI Reskilling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습득하도록 돕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과정은 기존의 직무에서 필요로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학습시켜 AI와 관련된 업무나 AI로 인해 새롭게 생성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업무 자동화 증가, 신규 직무 등장 외에도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Literacy(문해력)는 말 그대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으로, AI literacy는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본적으로 기술적 문서를 다독해 AI 모델의 원리, 데이터 처리 방법,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분석하거나 비판적 사고 훈련으로 AI의 장단점과 한계를 파악한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AI Reskilling & literacy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AI Reskilling & literacy 역량을 높인 직장인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우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기술적 역량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업무 통찰력이 증대하여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자동화와 효율성을 중시해 업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렇다 보니 프로젝트의 기회가 확대되는데, 이는 곧 직장인의 전문 역량을 쌓는 기회로 이어진다. 전문가로서 뽐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AI 시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직장인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프롬프팅과 AI Reskilling & literacy 역량 제고가 핵심이다.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AI 기술을 학습 및 활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과 준비는 직장인이 급변하는 AI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시대를 뛰어넘어 감동을 선사하는 이들을 ‘명장’이라고 한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명장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일까. 2023 국가품질명장인 백병철 울산전력지사 송전부 부장이 우리나라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나전칠기/옷칠 손대현 명장을 만나 품격 있는 명장의 대화를 나눴다. 그들을 통해 영원한 감동을 선사하는 명장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역사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영원한 감동으로, 명장의 품격

2023 국가품질명장 울산전력지사 송전부 백병철 부장 & 나전칠기/옷칠 손대현 명장의 대담



**백병철 부장(이하 백병철)** 만나 뵈게 되어 영광입니다, 손대현 명장님. 제가 명장님 소식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직접 듣는 소개는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대현 명장(이하 손대현)** ‘명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전기를 책임지는 한전의 백병철 국가품질명장님과 만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큰 기쁨입니다. 저는 제1호 나전칠기 명장이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호 옷칠장 손대현입니다.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60여 년이 흘렀습니다. 보통 눈뜨면 작업을 시작해 눈 감을 때까지 몰두하는데요. 오늘은 새벽 5시부터 작업에 들어갔지요.

**백병철** 명장님 손을 보면 60년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흔적이 보입니다.

**손대현** 명장은 무엇보다 ‘품질’에 신념을 뒤야 합니다. 한전도 품질 경영을 앞세워 지금의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전칠기를 만드는 데에 40~50가지의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초를 바로 세운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바로 그 단계를 시작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전 단계를 되돌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최상의 품

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작은 작품 하나를 만드는 데도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수납장 같은 큰 작품은 1년이 족히 걸리지요.

**백병철** 그렇다면 명장님께서 품질이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손대현** 가치관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환경에서 추구하는 바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 이러한 신념이 작품에 대한 열정과 탐구심이 더해지면 역작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백병철** 품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소하다고 생각되어 놓친다면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결과는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믿고, 아무리 사소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일을 충실하게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큰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너지의 결과는 품질이고요. 저 역시 명장님처럼 품질에 대한 집요한 신념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손대현**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 작품이 대를 이어서 천 년을 갔으면 합니다. 천 년 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면 제 정신은 천 년을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병철**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바로 명장이지요. 저 역시 그런 감동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만, 그 이후에도 국가품질 경영을 발전시키고, 국가품질명장의 후학 양성을 위해 코칭이나 컨설팅에도 열정적으로 임할 계획입니다.

분야는 다르더라도 두 명장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품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최고의 품질을 고수하는 이들의 정신은 ‘천 년’을 살고,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이 된다. 명장의 손길에서 탄생한 모든 것은 과거의 유산이자, 현재의 역작이고, 미래의 전설이다. 오랜 시간 변치 않는 가치로 시대를 연결하는 이들은 어떠한 변혁이 오더라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 2023년 국가품질명장 & 울산전력지사 송전부 백병철 부장

1986년 8월 한전의 송변전직군으로 입사한 후 변전, 송전, 감사, 품질 등 멀티플레이어로 근무했다. KEPCO 국제발명특허대전 동아리부문 4년 연속 최우수상 등 연속 수상, 2년 연속 특허대전 은상 수상,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상 수상을 계기로 국가품질명장의 자리에 도전했다. 그 결과, 2023년 10명 안팎으로 선정되는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됐다. 현재 후배 양성을 위해 자문이나 코칭, 컨설팅 등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부산시 미래혁신협의회장으로서 부산지역의 품질경영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 대한민국 나전칠기/옷칠 명장 손대현

16세 때 나전칠기와 인연을 맺은 후 60여 년 가까이 나전칠기와 함께 살아온 손대현 명장은 제1호 나전칠기 명장이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호 옷칠장이다. 그의 작품은 세계 각국에 나가 우리나라 전통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선물용 작품을 비롯하여 유럽 7개국 국가 원수 선물용 작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방한 선물용 작품 등이 대표적이다. 오는 10월 10일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세월에 따른 나전칠기 작품의 양상을 전시할 계획이다.



##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노력해 주길”

### 전시 상황 가정해 비상대비태세 점검

#### ‘2024년 을지연습’ 시행

2024년 을지연습이 김동철 사장을 연습감으로 본사와 15개 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3박 4일간 시행됐다.

특히 이번 연습은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하여 실효성 있게 시행하고자 총무 2종 사태를 가정한 불시 비상소집 훈련, 최초 보고, 전시 전환절차 연습, 전시 상황실 개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회사의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훈련 둘째 날은 강원본부 신태백변전소에서 전력설비 피해 복구 실제훈련을 관련 기관 합동으로 시행했다. 훈련은 북한 특작부대의 침투로 인한 송전철탑과 변압기 피폭으로 중요 전력 설비가 마비된 상황을 가상 시나리오로 설정했으며, 전력설비 방호 등 초동조치,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치료, 화재 진압, 긴급복구 등의 활동을 펼쳐 관련 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높였다.

또 한전은 매일 아침 상황보고와 함께 이루어진 전시 현안과제 발표와 토의시간에 비상시 위기대응 능력 제고 방안과 업무개선 방안을 토론했으며, 총 240여 건의 사건 메시지 처리



훈련을 통해 상황실 근무자의 전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훈련 마지막 날인 4일 차에는 민방위 대피훈련을 통해 적의 공습상황 시 대피요령 등을 숙달했고, 이어진 강평시간에는 을지연습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동철 사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이번 을지연습에서 얻은 성과와 시사점들을 잘 검토하여 총무계획에 반영하고, 비상사태 시 본사와 지역본부,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체계를 잘 구축하는 등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역대급 폭염에 연일 최대전력 경신

#### CEO 긴급 전력수급 상황점검



김동철 사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태풍 ‘종다리’의 복상으로 전력수급 상황이 우려되던 8월 20일 이준호 안전&영업배전부장과 함께 전력수급 컨트롤타워인 수요효율처 ‘전력수급 대책상황실’을 방문하여 전력수급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현 수요효율처장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24.8.24~9.6, 11주) 중 상황실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전력수급 비상 대비 준비 사항을 브리핑했다. 또한 태풍 종다리가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의 유입으로 냉방부하 증가 및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되어 역대 최대전력을 재차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변압기 전압하향 조정·냉방기 원격제어 등 사전에 확보한 추가예비력 7.2GW를 활용한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김동철 사장은 이날 점검 현장에서 “역대 최대전력 경신을 여러 번 할 정도로 올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지만, 준비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력수급 비상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 급변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 회사의 노력

최근 재난은 대형화, 불시성이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UN <세계 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건수가 1970년대 711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3,536건, 2010년대 3,165건으로 2000년대 이후 4~5배 급증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2020년 태풍 마이삭, 2022년 태풍 힌남노와 같은 초강력 태풍과 2023년 강릉 산불, 전국 집중호우 등의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또한, 올해도 극심한 폭염·폭우, 이상태풍 등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전, 어떻게 재난상황을 대처하는가?

우리 회사는 일상화된 이상기후 현상과 전국에 산재한 방대한 전력설비 운영 여건을 고려할 때, 불확실한 환경으로부터 재난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회사는 재난사고 예방과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현장 적합성과 작동성을 향상시켜 어떤 불확실성 재난 상황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단계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예방 단계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빈번한 시기에 전력설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사 안전처와 배전 운영처, 송변전운영처 간 협업을 통해 매년 여름-겨울철 재난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재난취약설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취약 재난인 폭우·태풍을 대비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사고발생 시 대규모 정전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설비(603개소), 시민재해 및 일반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설비(255개소), 상습 침수지역 내 설비(22개소)를 중심으로 점검대상(총 880개소)을 선정하여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올해는 급변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불시 재난으로부터 설비 및 정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디지털 기반의 신재난관리체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재난의 위험 정도를 지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정량화하고 내부 시스템을 통해 표출하여 재난 취약지역 내 위치한 전력설비 피해예측 정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기상청 예측자료(3일 정보)를 활용하여 호우,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 대비 단계

우리 회사는 자연재난, 전력계통고장, 전력수급부족, 사이버 테러, 전기설비 운전인력 부족, 지진·지진해일 등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그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의 작동체계를 검증하기 위해 안전한국훈련을 포함한 재난대비훈련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총 1,245건의 재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 실시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하면서 한전의 우수한 재난대응 역량을 널리 홍보했다.

올해는 정전에 따른 국민 불편 조기 해소를 위해 정전규모가 적은 국지성 대규모 정전 피해를 재난위기 유형에 포함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해당 내용을 반영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회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지성 대규모 정전 시 본사 차원의 비상대응체계 강화, 재난안전통신망(PS-LTE) 사용기준 별도 신설, 대국민 정전안내를 위한 재난문자(CBS) 발송 확대를 위해 관련 기준을 수립했으며, 행안부 시스템인 NDMS, CBS 활용 절차를 신설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 '국지성 대규모 정전' 용어 정의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전력계통 고장에 의해 발생한 60,000세대 이상 수용가에 '전력공급 장애(정전)'가 3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대응 단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책임인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단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재난으로는 호우, 강풍(태풍), 지진·지진해일 등의 자연재난과 산불, 전력계통 고장, 전력수급 부족 등의 사회재난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규모 및 범위에 따라 다양한 재난대응활동을 시행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의 재난대응 절차는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 **징후감시**: 사내·외 시스템(공공 데이터 연계)을 활용한 재난징후, 발생 감시
- **상황판단**: 재난의 발생·확산 전망에 따른 대응규모 판단
- **비상발령**: 상황판단 결과 대응규모에 따른 비상단계( **백색** - **청색** - **적색** ) 결정\*  
\* 재난관리부서에서 비상발령권자(사업소: 사업소장, 본사: 부사장)에게 보고 후 발령
- **비상대응체계 가동**: 상황실 운영을 통한 상황관리, 현장 피해복구 등 시행
- **비상해제**: 복구완료, 기상상황 호전 등 추가 상황관리 불요 시 비상단계 해제

위에서 보듯이 우리 회사는 비상단계를 3단계(백색-청색-적색)로 운영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조정한 재난대응을 위해 올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를 아래와 같이 도입하고자 한다.

| 비상단계 | 재난경보 단계 | 주요 활동          | 비상근무 단계 (정부 연계) |
|------|---------|----------------|-----------------|
| 백색   | 관심      | 징후 감시, 식별·전파   | 0단계(소관부서 담당)    |
| 청색   | 주의      | 초기 대응, 상황실 가동  | 1단계(중대본 1단계)    |
| 적색   | 경계      | 응급 대응, 공조체계 가동 | 2단계(중대본 2단계)    |
|      | 심각      |                | 3단계(중대본 3단계)    |

## 복구 단계

재난 발생으로 인한 전력설비 및 정전 피해를 복구하는 단계로서 재난이 종료된 후 설비부서에서 인력·자재·장비를 동원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제반 활동이다. 또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객설비인 경우에도 비상발전차, 임시공급 설비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호우·태풍 등 재난 내습 시 직원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현장 출동을 금지하고, 피해 복구 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재난이 종료된 이후 복구현장의 현장점검 시행 전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한 후 피해설비에 대한 복구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 현장 출동 금지조건(건설공사분야 안전작업수칙 132조 준용)

- ▶ 우천, 강풍, 강설 등 악천후일 때는 원칙적으로 현장 출동을 금지한다.
  - ① 강풍: 관목의 큰 가지가 흔들리는 평균풍속이 7~10m/s 이상일 때
  - ② 강우: 1회의 강우량이 50mm 이상(0~24H까지)
  - ③ 강설: 1회의 강설량이 25cm 이상(0~24H까지)
  - ④ 짙은 안개: 지상에서 작업자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
  - ⑤ 기타 기상현상(낙뢰 등)으로 안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또한, 재난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업무가 중단되더라도 목표시간 내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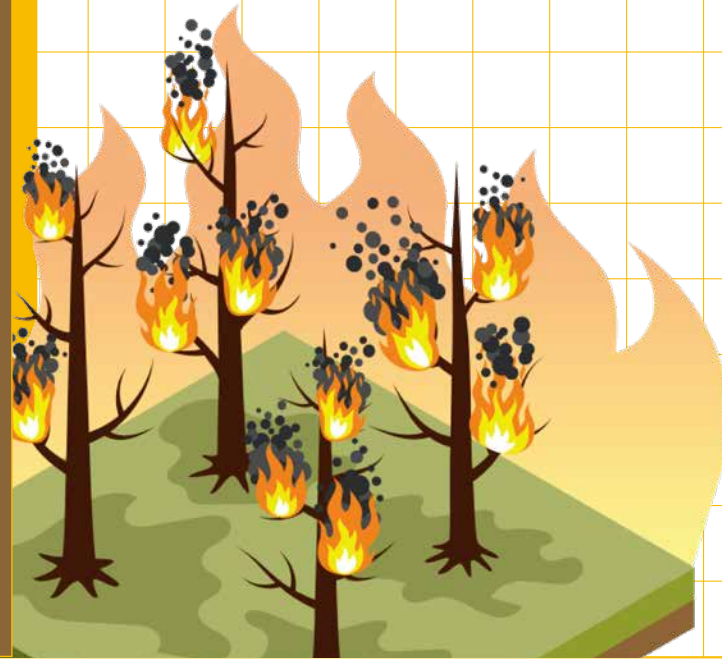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복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운영·감시·검토·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경영시스템

우리 회사는 2024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달성한 92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핵심 업무 중단 및 필수자원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풍수해, 지진, 산불, 업무시설 화재 등 다양한 위험요인 27가지를 도출하고,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핵심 위험요인 8가지를 선정하여 업무 연속성 전략을 수립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재난관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증받아 우리 회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상기후 수준을 넘어 기후위기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어떠한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처는 지속 가능한 재난대응체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선진 재난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신기술과 시스템을 접목하여 최종적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계획이다.



- 1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건조특보,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불위험지역 등 위험한 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2 산불발생지역 근처에 있으면 지정된 대피장소로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 3 산불확산지역에 설비가 위치한다면 계통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린다.
- 4 산불이 완전하게 진화되기 전까지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1 태풍 내습이 예상될 경우 태풍정보(최근접 시간, 태풍 영향반경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2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하지 않으며, TV,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한다.
- 3 개울가, 하천변 등 침수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는다.
- 4 야외 활동(순시 점검 등)을 자제하며, 태풍이 완전하게 지나간 이후 설비 복구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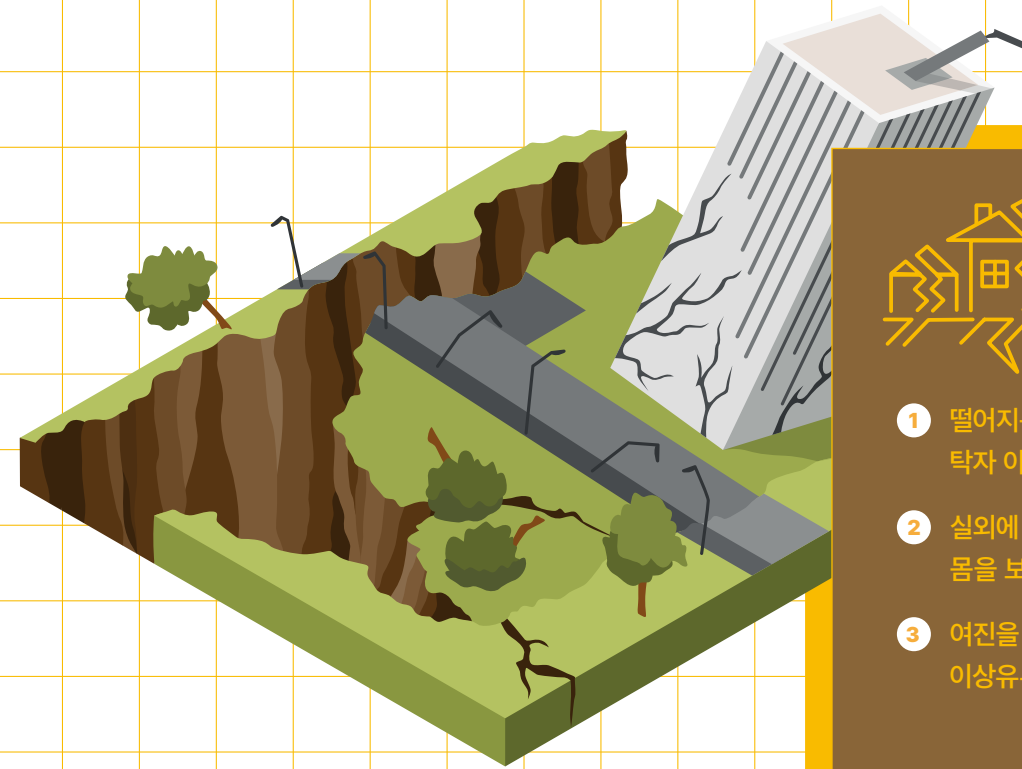


## 미리 알아두자!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그 피해 양상 역시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재난에 대비를 하더라도 재난으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1 기상특보(호우주의보, 호우특보) 등 기상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2 상습침수구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3 기상 악화로 전주가 넘어지거나 전선이 끊어진 경우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4 지반 침하 등으로 설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상이 호전된 이후 복구 작업을 시작한다.



- 1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거나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 2 실외에 있을 경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안내에 따라 대피한다.
- 3 여진을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설비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을 시행한다.

# 2024 파리올림픽, 은빛 영광의 주인공을 만나다

김원호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  
김상훈 평택지사 차장



올여름은 2024 파리올림픽의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한전 가족이 은메달을 획득하여 더욱 의미가 컸다. 한전 김상훈 평택지사 차장과 그의 아들, 2024 파리올림픽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원호 선수를 만났다.



## 모자 메달리스트 1호 탄생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를 아들로 둔 김상훈 평택지사 차장의 행복한 꿈이다.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올림픽 직후라 메달리스트 김원호 선수를 만나기는 어려웠다. 바쁜 그의 일정으로 한 시간 전에 촬영 스케줄이 잡혔고, 부자간의 다정한 모습을 뷰파인더에 담을 수 있었다.

김상훈 차장의 아들은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서 혼합복식 은메달을 거머쥔 김원호 선수다. 게다가 그의 부인은 무려 길영아 감독. 그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삼성생명 배드민턴 감독이자,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여자복식 동메달,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과 여자복식 은메달을 따낸 배드민턴계 전설이다. 이번 은메달 획득으로 김원호 선수와 길영아 감독은 모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1호로 등극해 화제가 됐다.

아버지, 김상훈 차장 역시 1993년 한전 실업팀 선수로 입단하여 선수로 활동한 후, 1999년에는 코치로서 후배 양성에 힘썼고 지금은 한전 경기본부 평택지사에서 근무하며 휴일에는 지역배구 활성화를 위해 활약하고 있다.

아버지로서 김원호 선수의 메달 획득 과정을 지켜본 김상훈 차장은 예선부터 메달을 딸 때까지 매 순간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고 고백한다. 사실 예선 조별리그에서 첫 게임 상대인 인도네시아팀한테 아깝게 1:2로 패하면서 올림픽 메달을 바라보기는 어렵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 8강에 진출해 말레이시아팀을 2:0으로 이기고 4강에 진출했을 때, 여기까지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뻐했다고. 우리나라 서승재, 채유정조와 경기를 하게 된 아들이 경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구토투혼을 펼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단다.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메달을 확보하면서 결승에 진출했을 때는 사정없이 기쁨에 눈물이 쏟아졌으며, 그 장면 하나하나가 죽을 때까지 깊이 남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 한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군 영광

어릴 적 김원호 선수는 운동의 재능을 보이는 꿈나무였다. 서너 살 때부터 엄마 따라 배드민턴장에 가면 성인 배드민턴 라켓으로 공을 치겠다고 졸랐고 날아오는 셔틀을 제법 받아칠 정도로 관심과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달리기도 빠르고 운동신경도 뛰어나 주변에서도 무조건 운동을 시키라고 권유할 정도였다. 결국 초등학교 2학년 때 배드민턴부에 입단해 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배드민턴의 꿈을 키우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메달이었지만, 실력은 오로지 아들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일군 것이었다. 초등학교 때 32연승의 무패 행진 기록, 우수선수 선발, 주니어대표, 국가대표 상비군에 이르기까지 정직하게 실력으로 평가받아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후광을 의심하는 목소리들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엔 결국 배드민턴 선수를 그만 두겠다고 하는 등 갈등이 심했지만 잘 참고 버텨주어 더 고맙다고 김상훈 차장은 말한다. 모자 메달리스트를 배출해낸 가정에 한전은 그 무엇보다 든든한 울타리였으며 김상훈 차장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 한전 배구팀 코치생활을 하면서 겨울에 시작해 봄에 끝나는 시즌경기과 여름에는 해변 비치발리볼 시합 등으로 1년 내내 집보다 밖에서 생활을 많이 했고, 아내인 길영아 감독도 수많은 대회와 시합 출전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기에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던 가족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하기까지 한전이 가족에 안정감을 주는 원동력이었다며 자신이 한전인이라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다고 한다.

앞으로 세계 전영오픈대회 우승,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8년 LA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다시 담금질을 시작하는 김원호 선수를 향해 부상에 주의하라며 무엇보다 건강을 걱정하는 김상훈 차장은 영락없는 자상한 아버지다.

서로 다른 듯 닮은 아버지와 아들, 김원호 선수와 김상훈 차장은 한전인 모두 힘을 합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버텨서 결국 메달처럼 값진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는 은빛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총 규모 978MW ESS 건설사업 마침표!

부북변전소 ESS 구축 현장을 가다

한전은 7월 19일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부북변전소에서 336MW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최초 가압\*했다. 이로써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한 영주, 함양, 예산, 영천, 신남원, 부북 6개 변전소의 총 용량 978MW ESS 건설 사업을 완료했다. 그 현장으로 가보자.

\*가압(加壓)이란 변압기, 송전선로 등 전력공급용 설비에 전기를 인가하는 것이다.

ESS 컨테이너 내부에 촘촘히 적재된 배터리들을 살펴보고 있다

## ESS, 발전제약 완화로 전력공급 불안정 해소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에 위치한 나노산단 내 부북변전소, 광활한 변전소 부지에 거대한 ESS 컨테이너가 도열해 있다. 각 14개가 늘어선 ESS컨테이너 행렬은 기역(ㄱ) 자 모양으로 꺾여 다시 이어지며 총 6개의 라인을 이룬다. ESS 컨테이너 문을 열면 내부는 층층이 쌓인 ESS 배터리로 빼곡하다. ESS란 Energy Storage System 즉, 에너지저장장치를 지칭한다. 에너지저장장치는 말 그대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설비다.

부북변전소의 ESS 설비용량은 총 336MW, 국내에서 최대 규모다. 부북변전소의 가압은 총 규모 978MW의 ESS 건설사업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영주·함양·예산·영천·신남원·부북변전소 등 6개 변전소에 ESS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부북변전소는 그중 마지막 가압이다. 이번 978MW ESS 구축 프로젝트는 약 1GW의 발전제약 완화 효과를 거두어 전력공급 불안정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6개 변전소에 총 용량 978MW ESS 건설 사업을 완료한 주역들.

부북변전소 옥상에서 바라본 ESS 배터리 컨테이너 일부분 모습

그동안은 광역정전과 같은 전력계통 긴급상황에 대비해야 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중 10~20%가량을 예비로 남겨 두어야 하기에 발전계약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광역정전을 예방하는 첨단기술들이 집약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ESS를 활용하면, 대규모 발전기가 정지되거나 설비고장과 같은 전력계통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ESS 배터리 시스템이 초단시간에 충전과 방전을 통해 최적으로 전력을 제어하여 정전 피해를 최소화하고 광역정전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발전계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철저한 예방시스템으로 화재 제로(Zero)

더운 날씨지만 컨테이너 내부는 쾌적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엔 낙뢰를 막아주는 피뢰기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내부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력이 차단되는 화재예방장치가 완비되어 있다고 부북변전소 ESS 설비구축을 담당했던 김훈기 차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특히 ESS는 민간에서 발생한 화재 이슈가 있다 보니 대비책을 철저히 구축했다. 전력연구원에서 개발한 ESS용 배터리 실시간 온라인 열화관리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배터리 80~90% 이상 충전 금지라는 정부 권고사항에 자체 구매규격까지 더해 표준화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했다. 그 외에도 시각동기화, 설비 절연내력 기준 강화 등 화재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대책 적용 이후 한전의 ESS에서는 단 한 건의 화재도 없었다고 설명한다.



ESS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ESS 운영시스템 앞에서 토론하는 담당자들.

### ESS 건설사업의 주역들 한자리에

6개 변전소에 ESS 설비구축을 담당했던 어벤저스들이 집합했다. 예산·신남원변전소를 맡았던 중부건설본부 서종근·김경남 차장, 영주·영천변전소의 대구경북건설지사 박영철 차장, 부북·함양변전소를 담당했던 남부건설본부 김훈기 차장, 노현우 대리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번 사업은 설비규모가 56MW에서 336MW에 이르는 전사적으로도 과거에 진행된 적이 없었던 대용량의 ESS 건설사업입니다. 이에 과거 ESS 사업 유경험자와 사내·외 관련 부서 전문가를 통해 ESS 구매규격을 표준화하여 기술기준을 정립했으며 전력계통 맞춤형 ESS 표준모델(56·112·168MW)을 도입했습니다.” 김경남 차장이 자랑스럽게 운을 떀다.

이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물으니 ‘시간과의 싸움’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2020년 9월 적용계획이 수립된 ESS는 2022년이 되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되기도 전에 미리 자재발주나 대관협의, 기본설계 등 사업준비를 서둘렀고, 국내 사업자들과도 14회에 걸친 사전 공청회를 통해 ESS 사업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ESS 자재공급과 시공을 통합으로 진행하고, 낙찰자 선정방식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중합낙찰제로 개선해 적정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특히 전문인력 확보가 관건이었다. 그중에서도 설비시험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했다. 이에 전력연구원과 본부 시험파트 담당자들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설비시험을 완료하고 가압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도 변수였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2023년은 평년보다 유독 강수가 잦았다. 또 공사 과정에서 지중에 거대 암반과 같은 장애물로 공정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빈번했다. 이들은 본사와 사업소, 사업자들이 모여 공정관리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공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지연요소를 최소화해 갔다.

한편, 배터리에서 전력변환시스템(PCS)을 거친 440V의 전력을 22.9kV 계통에 연계하기 위해 설치되는 ESS용 변압기의 경우 기존 5.2MVA에서 10MVA로 규격을 상향함으로써, 연계되는 개폐장치의 물량을 50% 감소시켰으며, 이를 통해 약 255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해냈다. 아울러 ESS 건설사업에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여 막대한 자원과 비용을 절감했으며 민원발생 우려도 최소화했다.

이들의 무수한 고민과 노력과 시행착오를 담은 걸음들로 결국 ESS건설 사업은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ESS를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피뢰설비를 들여다보는 노현우 대리.

### 미래를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하지만 한전의 도전은 계속될 예정이다. 한전 송변전건설단은 제 10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소릉·논공·나주·선산·신영주변전소 등 5개 변전소에 300MW ESS를 건설하는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간과 싸우며, 돌발상황들을 헤치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들. ESS라는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며 미래에너지산업의 역사를 쌓아가는 한전의 거침없는 행보에 주목해 볼 일이다.



PCS 설비를 살피는 김훈기 차장.



전력용 변압기 앞에 선 담당자들.

## 영원히 지지 않는 나만의 작은 정원

### ICT운영처 사우들의 테라리움 만들기



# terrarium

정원을 가꾸는 일은 마음을 가꾸는 일과 같다.

내 마음에 무수히 자라난 가지를 쳐서  
무게중심을 바로잡고,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방치해 뒀던 내 마음에 관심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ICT응용시스템부 현혜련 차장,  
ICT서비스부 민선아 대리, 경영시스템부 이해민  
대리, AMS개발부 김진수 대리가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기 위해 한데 모였다. 4인 4색  
테라리움을 만든 이들은 푸르름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며 영원한 추억을 쌓았다.

이끼로 ‘탄소중립’ 하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흔한 이끼. 하지만 이 작은 이끼가 거대한 자연을 정화하는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이끼는 최초의 육상 식물로, 약 4억 년 전부터 자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끼의 주요 역할은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저장해 홍수를 방지하고 가뭄에는 저장한 물을 방출해 땅이 마르는 것을 막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끼가 지구 산소의 30% 이상을 생성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1㎡의 면적으로 연간 약 1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제거하며 이 외에도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가스 등도 정화한다. 관리도 쉽다. 수분과 공기 중의 탄소, 약간의 빛만 있으면 알아서 생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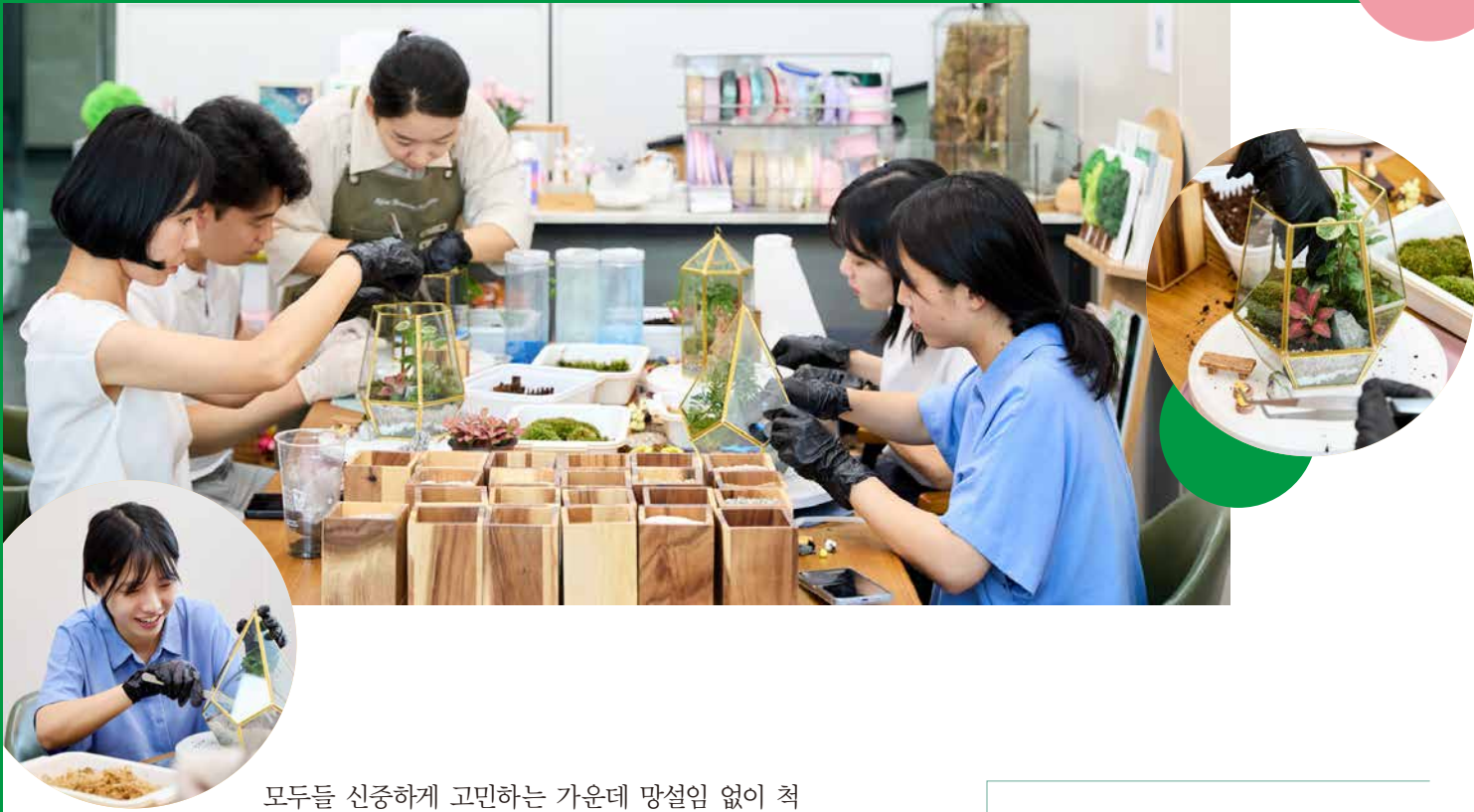
그렇다 보니 최근 이끼가 탄소중립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의 환경 기업은 ‘이끼 타워’를 도시 곳곳에 설치해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빌딩 옥상에 이끼 정원을 조성하는 등 이끼를 활용한 탄소중립에 다가서고 있다.

이끼, 테라리움의 꽃이 되다

우리네 일상에서도 이끼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테라리움이다. 작은 투명 용기 안에 서너 종류의 식물을 옮겨 심어 감상하는 홈 가드닝인 테라리움에는 이끼가 주로 사용된다. 이끼가 식물의 순환과정을 돕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도 용이해 식물 키우기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테라리움은 안성맞춤이다. 이처럼 이끼가 많이 쓰이다 보니 ‘테라리움의 꽃은 이끼’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부장님께서 테라리움을 키우시는데,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참여 직원들은 테라리움 만들기를 체험하게 된 계기에 관해 이야기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나갔다.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의 투명 용기에도가 어떤 자갈과 돌, 색모래로 지층을 표현하고 어떤 모양의 피규어로 장식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모두들 신중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망설임 없이 척척 선택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AMS개발부 김진수 대리다. 반면 선택장애로 고심하는 이도 있으니, ICT서비스부 민선아 대리다. “난 세상에서 고르는 걸 제일 못하는데.” 그 말을 증명하듯 가장 마지막으로 테라리움 용품을 골랐다는 후문이다.

#### 다양한 모습으로 완성된 테라리움

처음에는 다소 부산스러웠지만, 자갈, 돌 등으로 지층을 표현하는 단계서부터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테라리움에 집중했다. 돌끼리 부딪히는 소리, 모래를 쏟는 소리만이 공방을 채웠다. 테라리움도 조금씩 테마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ICT응용시스템부 현혜련 차장은 아기자기한 정원을, ICT서비스부 민선아 대리는 해외 느낌이 물씬 나는 해변가를, 경영시스템부 이혜민 대리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대명사 스튜디오 지브리 느낌을, AMS개발부 김진수 대리는 바다 생물이 사는 섬을 표현했다. 이끼도 각 테마에 맞춰 섬이 되기도 했고, 숲이 되기도 했으며, 무성한 수풀이 되기도 했다. 그중 모두의 주목을 받은 작품은 지브리 느낌을 표현한 이혜민 대리의 테라리움이다.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마녀 배달부 키키>의 피규어를 장식하는 등 소품 하나하나가 정말 ‘지브리’스러웠기 때문이다. 김진수 대리의 바다 생물과 섬을 표현한 테라리움도 ‘팔아도 될 정도’라며 극찬을 받았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4인 4색 저마다의 개성을 품고 있는 테라리움. 작은 세계를 품은 투명한 유리병에는 푸르른 생명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영원히 지지 않을 이 푸르름이 이들의 마음에도 깊이 스며들었기를.



### \*TIP

안 쓰는 유리그릇,  
화분으로 변신!



오래되어서 트렌드에 맞지 않는 유리그릇은 버리기에, 사용하기에도 애매하다. 그 때문에 해마다 안 쓰는 유리그릇이 쌓여만 간다면, 화분으로 재탄생시켜 홈 가드닝에 사용해 보자.

준비물: 안 쓰는 유리그릇, 물수건, 대야, 세면 솜, 망치

- ① 안 쓰는 그릇에 물수건을 담아 수분감을 줍니다.
- ② 물이 담긴 대야 속에 그릇을 얹어 놓습니다.
- ③ 그릇 아랫면 중앙 부분에 세면 솜을 가져다 댑니다.
- ④ 망치로 조심스럽게 세면 솜을 두드립니다.
- ⑤ 원하는 크기만큼 구멍을 뚫으면 완성!

### mini interview



현혜련 차장

● ICT응용시스템부

#### 1 테라리움 테마: 아기자기한 정원

생각보다 무난하게 잘 꾸며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제 테라리움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도 충분히 즐거웠지만, 다른 분들의 테라리움이 점차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걸 보는 재미가 특히 더 쏠쏠했어요.



민선아 대리

● ICT서비스부

#### 2 테라리움 테마: 해외 해변가

미리 테마를 생각하고 왔으면 더 예쁜 테라리움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예쁜 테라리움이 완성할 수 있다 보니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이혜민 대리

● 경영시스템부

#### 3 테라리움 테마: 스튜디오 지브리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에서 나오는 숲속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특유의 감성을 구현해 내는 게 힘들었지만, 강사님이 잘 어울리는 소품 등을 추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완성되고 보니 굉장히 뿌듯합니다.



김진수 대리

● AMS개발부

#### 4 테라리움 테마: 바다 생물과 섬

일단 바다를 구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테라리움을 만드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해서 ‘왜지?’ 싶었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 그 시간도 모자란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 채로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야속한 세월에 아무리 장사 없다지만  
반가운 손님 앞에선  
언제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손잡으며 나란히 웃는 이 순간  
주름진 얼굴도 잊고  
우리의 추억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헬로 모토(Hello Moto)!”. 1990년대 모토로라의 광고 문구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의 목소리를 빌려 전파를 탄 이 한 마디는 모토로라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당시 무전기를 비롯해 ‘삐삐’로 불린 개인용 호출기에 이어 스타택, 레이저 등 돌풍을 일으킨 휴대폰 모델을 앞세워 모토로라는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모토로라는 점점 잊혀졌다. ‘왕년의 강자’로 역사 속에 사라질 것만 같았던 모토로라. 그들이 최근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 ‘왕년의 강자’ 모토로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다



### 지구의 발전과 함께한

#### 모토로라

모토로라(Motorola)는 지난 1928년 폴 갤빈(Paul Galvin)이 설립한 이후 당시 큼지막한 배터리로만 작동하던 라디오를 가정용 전기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류기(Eliminator)를 생산, 제품으로 출시하며 혁신을 가져왔다. 1930년대에는 자동차의 발전과 더불어 차량용 라디오를 개발해 다시 한번 도약에 성공했는데, 당시 판매한 제품의 상표가 지금의 모토로라다. 모토로라는 1947년부터 회사의 정식 명칭으로 사용됐다.

2차 세계대전에서도 모토로라의 존재감은 빛났다. 휴대용 핸드토키(Handie-Talkie) 혹은 워키토키(Walkie-Talkie)라 불리는 무선통신기기를 개발해 연합군의 승리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 이후 모토로라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고체전자공학(Solidstate Electronics)연구소를 설립했고, 1950년대 말 애리조나주에 첫 번째 반도체 제조공장을 세웠다. 이후 1960년대에는 미국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모토로라는 우주선의 통신장비와 설비를 도맡았다. 1969년 달에 착륙해 “인간의 작은 발걸음 하나지만 인류에게는 큰 발걸음”이라고 말한 닐 암스트롱의 육성을 지구에 전달한 것도 바로 모토로라다.



### 휴대전화로 맞본

#### ‘홍망성쇠’

모토로라는 무전기와 통신장비 등으로 성장한 이후 과감한 사업분야 정리에 나섰다. 컬러 TV, 오디오 기기 등의 가전제품 시장을 철수하고 기술 집약도가 높은 통신, 특히 이동통신단말기(휴대전화) 시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았다.

모토로라는 처음으로 선보인 휴대전화 모델 다이나택 8000X(DynaTAC 8000X)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브이닷(V.)과 스타택(StarTAC), 레이저(RAZR)와 같은 히트상품을 연이어 만들어 냈다. 1990년대 시장을 주름잡던 모토로라는 2000년대 노키아와 함께 세계 휴대폰 시장의 양대 강자로 불릴 정도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자 모토로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보안 현장에서 모토로라 솔루션사의 다양한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다.



름이 급격하게 넘어가면서 모토로라는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진을 거듭했다. 모토로라 역시 안드로이드 기반의 자사 스마트폰들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애플 아이폰의 빠른 성장에 모토로라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처럼 힘쓰지 못했고, 결국 모토로라에 위기가 찾아왔다. 2011년 모토로라의 모바일 산업은 모토로라 모빌리티, 무전기 솔루션 분야는 모토로라 솔루션으로 분할됐다. 미국 구글에 매각된 이후 2014년에는 중국기업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인수하게 된다.



### 스마트폰으로 온 모토로라,

#### 보안사업으로 ‘기사회생’

스마트폰 시대에서 도태된 모토로라는 뜻밖의 영역에서 해답을 찾았다. 그곳은 바로 ‘보안 시장’이다. 2011년 경영위기로 분할된 모토로라 솔루션스는 보안시장에서 폐쇄회로(CC) TV, 무전기, 재난 통신망 사업에서 서구권 1위를 기록하면서 세계 보안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모토로라는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시장을 개척하기 이전 이미 다양한 통신망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경쟁력을 입증한 부분은 기술력과 더불어 내구성이다.

이미 과거 세계 2차대전을 통해 전쟁용 통신기기를 납품한 모토로라의 기술력은 극한 환경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전쟁을 버틴 내구성은 지진과 화재를 충분히 견뎌냈고, 일반 통신망이 파괴되더라도 튼튼하게 작동되는 것은 모토로라 솔루션이 유일했다. 모토로라 솔루션은 일반 무전기를 넘어, 경찰들이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 등 다양한 현장 감시장비까지 선보이며 보안의 전반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모토로라는 경찰, 소방당국, 정부 등을 상대로 계약을 맺는 등 탄탄한 공급망을 갖추면서 성장 중이다. 모토로라 솔루션의 지난해 매출은 100억 달러(약 13조 8,0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23억 달러(약 3조 1,74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장하던 스마트폰에서 실패를 맞본 모토로라가 정보기술과 통신망을 활용한 미래기술로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기업의 존폐를 걱정하던 모토로라가 기적처럼 살아났다.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해답을 찾은 모토로라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와이미 증후군

현대 사회는 정글과 같다. 철이 들기도 전에 던져진 경쟁의 장. 그 안에서 죽기 살기로 버텨서 겨우 안착한 직장. 이제 멋진 직장인이 될 것 같았는데, 세상일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주어진 일만 하기도 버거운데, 뭔가 상황은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 상사도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며, 동료들도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 같다.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상황이 나에게 나쁜 쪽으로 변한다. 왜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기는 걸까. 왜 나에게만? Why me?

# Why me?



## 우리는 왜 남 탓을 할까?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에게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해지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와이미 증후군'이라고 한다. 와이미 증후군이 현대에 와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나에게 나쁜 일만 겹쳐서 발생한다는 '머피의 법칙'만 해도 유사한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존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된다. 자존감이 중요하니 우리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의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남 탓을 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기본 귀인 오류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귀인(attribution)이라 한다. 귀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이다. 내적 귀인은 일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외적 귀인은 내가 아닌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내적 귀인을 하는 반면, 동일한 일을 동일한 상황에서 내가 하면 외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기본 귀인 오류라 한다.

내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외적 귀인을 해서 환경 탓, 남 탓을 하는 행위는 와이미 증후군과 다르지 않다. 와이미 증후군은 인간이라면 대부분이 가지고 있음직한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도 있다.

## 왜 나쁜 일만 '기억'하는 것일까?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먹구구식 판단 과정은 와이미 증후군을 더 강화시킨다. 가장 논리적이라는 인간이지만, 우리의 의사 결정 및 판단 과정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연산법(algorithm)을 사용해야 하지만, 게으른 우리 뇌는 굳이 많은 인지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연산법 대신 어림법을 주 판단기제로 사용한다. 말이 좋아서 어림법이지, 대충 때려 맞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간의 판단은 논리적이지 않다.

가용성 어림법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머리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사건이 실제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k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와 'k가 세 번째 철자인 영어 단어' 중 어떤 것이 더 많은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k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더 많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k가 세 번째 철자인 영어 단어'가 3배 정도 더 많다. 'k로 시작

하는 영어 단어'는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반면, 'k가 세 번째 철자인 단어'는 쉽게 떠오르지 않아서 가용성 어림법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부정성 편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부정성 편향은 좋은 일과 나쁜 일 중에서 나쁜 일에 더 주의가 가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생존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진화적 목적과도 연관된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빨리 탐색해서 해결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정성 편향이 발생한다. 이 부정성 편향이 가용성 어림법과 만나면 재앙이 발생한다. 부정성 편향 때문에 나쁜 일에 더 주의가 가고,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각나니 가용성 어림법 때문에 나에게 나쁜 일만 발생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

##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핸디캡'이다

나에게만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나만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나만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왜 누구에게는 별것 아닌 감정이 되고, 누구에게는 '와이미 증후군'이 되는 걸까?

단순하게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 혹은 긍정적 에너지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수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자존감의 수준을 높이는 훈련이 와이미 증후군 탈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식적으로 외적 귀인보다 내적 귀인을 하고, 나쁜 일들 사이에 발생하는 좋은 일들에 더 주의를 주고, 나쁜 일들이 가져오는 영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만화 <슬램덩크>에서 주인공 강백호는 중요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다. 주변에서 경기를 포기할 것을 권하던 그때, 강백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깃 부상, 나 같은 천재에게는 적당한 핸디캡이지." 와이미 증후군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다. 생각과 달리 우리의 주변은 나쁜 일로만 가득 차 있지 않고, 그나마 있는 나쁜 일들도 유능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히 주변을 둘러보자. 별것 아니다.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핸디캡일 뿐이다.

## 山 시리즈 ①

# 등산, 정상의 환희를 느끼다

‘등산’. 이만큼 호불호 갈리는 단어는 없을 터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달콤한 단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힘든 산행부터 떠오르기 때문이다. 등산이 건강에 좋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어렵듯이 알고 있을 뿐이다. 등산과 관련된 시리즈를 연재하며 그 첫 번째로 등산을 왜 해야 하는지, 등산의 긍정적 효과를 정확하게 짚어본다.

##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



산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수 없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게임에 몰두할 수 없다. 눈빛을 주고받는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만 남는다. 카페에서 함께 차 마시고, 맛집을 찾아 식사하는 것도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산에서 함께 땀 흘리고 도와가며 정상에 올라 성취감을 나눈 사람과의 관계에 비할 바 못 된다.

## 면역력 증진



나무는 피톤치드를 뿜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가 숲을 이룬 산을 몇 시간씩 걷는 것은 피톤치드로 샤워하는 것과 같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균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어 피톤치드를 호흡으로 마시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며,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 완벽한 전신운동

불규칙한 산길을 오르내리면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몇 시간씩 사용하게 된다. 의사들이 힘의 원천이라 지적하는 파워존 근육을 사용하면서 고관절과 허벅지를 비롯한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 햇볕을 쬐고 뼈에 자극을 주게 되므로 비타민D가 활성화되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되며,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



## 스트레스 해소



스마트폰으로 총 쏘고 칼을 휘두르며 얻는 즐거움만으로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는 어렵다. 꾸밈없는 자연을 피부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은 회복된다. 날카로웠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엉킨 마음이 정돈되는 놀라운 과정을 체험한다. 실제로 등산을 하면 뇌신경 속 행복을 전달하는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되어, 스트레스 해소와 행복감 증가에 도움이 된다.

알아 두면 좋은 1분 노하우

## 산에서 안전한 걷기 노하우 TOP 3

### 11자로 걷는다



발끝이 몸 바깥으로 향하는 팔자걸음은 한 발을 좌우로 꺾으면서 직진하는 차와 같다. 가야 할 방향은 정면인데, 미세하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벗어나면서 가고 있는 것. 11자 걸음보다 에너지 소모가 크고, 불규칙적인 지형이 많은 산길에서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된다.

### 발바닥 전체로 딛는다



지면에 닿는 발의 면적이 넓을수록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산행이 가능하다. 지나치게 발뒤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는 걸음이면, 체중이 한곳에 몰려 족저근막염이 올 수 있다. 지나치게 앞꿈치로 딛게 되면 체력 소모가 급격히 높아지고 특정 근육에 무리가 올 수 있다.

### 보폭을 짧게 한다



보폭을 짧게 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보폭이 넓으면 훨씬 빠를 것 같지만, 비탈이 많은 산길 특성상 무게 중심이 위태로워져 낙상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관절과 연골에 부하를 주게 된다. 오르막길에서 무리하게 높은 곳을 딛기보다 차근차근 낮은 데를 나눠서 밟아 오르고, 내리막길에서는 높은 데를 차근차근 나눠서 디더 내려와야 한다.

#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어라

연극 <만리향>

책,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삶에 유용한 영감과 지혜를 얻는  
한전인의 'Talk' 시간. 동청주지사와 함께 가족의 연대를 그린  
연극 <만리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024.08.16-09.01  
연극 <만리향>

## PANEL

### 김규환

동청주지사 전력공급부 사원

2022년 4월에 입사해 이제 약 2년 4개월 넘은 새내기 김규환 사원. 배전 신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현장조사 및 배전공사 관리감독을 하면서 새내기답지 않은 능숙함을 뽐내고 있다. 평소에 연극은 물론 영화, 드라마도 잘 보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번 기회로 취미생활의 영역을 넓혀보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 이교영

동청주지사 고객지원부 사원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MBTI도 ISTJ라는 이교영 사원은 신규 저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어 배울 것도, 새로운 것도 많지만 전기 사용의 첫 단계를 맡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연극은 접한 적이 몇 번 없는 데다 소극장에서의 공연은 처음이라 <만리향> 관람에 기대감을 품었다.

### 이혜미

동청주지사 요금관리부 사원

요금 조정과 전기사용계약 위반 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혜미 사원은 고압전력 사용고객의 정기검침일부터 요금 확정 날까지 약 5일간 잘못된 검침을 찾고, 요금에 약영향을 주는 요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다소 딱딱한 업무와 달리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에 상상력이 풍부해 상대방의 감정에 곧잘 공감하는 편이다.

### 정희창

동청주지사 요금관리부 사원

홀로 하는 취미를 즐기며, 피아노 연주, 독서 등을 좋아했다는 정희창 사원. 회사생활을 하면서 성향이 바뀌었다. 댄스학원에서 춤을 배울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서핑과 스노클링을 하는 등 몸을 직접 움직이는 활발한 취미를 즐기고 있다고. 이번 'TALK' 참여를 통해 총주에도 자랑할 만한 지역 극단이 있음을 알게 돼 기뻐한다.

“  
김  
규  
환

전국적으로 이름난 중국집의 사장이자 주방장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첫째가 가업을 이어받았지만, 가세는 점차 기울고 가족들 사이는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실종됐던 막냇동생을 어머니가 봤다는 이야기에 가족들이 합심하게 되는데요. 다시 가족이 모여 묵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 때로는 화내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는 장면 등을 통해 가족들의 사이가 회복되는 모습이 가슴 따뜻해졌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가족이 있는데요. 서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아쉽습니다. 가끔 마주앉아 식사할 땐 가족으로서의 애뜻함을 느끼거든요.”

얼마전부터 **막내** 봤다.  
더이상 안 찾고, 나만 편하게 지내서  
**미안한 맘에 첫것**을 본다고 생각했어.

- 어머니

막내 눈은 감겨 줘야지.  
잘 달래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우리, 그렇게 **위안**을 삼자.

- 첫째

“  
이  
교  
영

실종된 막냇동생을 봤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가족 간 다툼이 더욱 깊어지지만, 진짜 굿판으로 서로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따뜻한 화해가 이뤄지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일상적인 가족 문제를 코믹하게 표현하면서도 감동을 주었고, 결국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굿판을 벌이면서 어머니가 “막내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알게 해달라”고 말한 게 기억에 남는데요. 오랜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애정을 절절하게 보여준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짧은 대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절망과 간절함이 강하게 와 닿았고,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을 선명하게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  
이혜미 제목이 ‘만리향’이라는 점에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작품을 볼 때는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감상한 뒤에 의미를 생각하는 편이라 단순히 중식당 이름을 제목으로 썼나 하고 넘겼는데 요. 연극을 다 보고 난 뒤 ‘만리향’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단순한 중식당 이름이 아니라 가족이 싸우고 울고 웃으며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족의 결합을 위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장치였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족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원수 같다가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모순덩어리입니다. 하지만 가족들 덕분에 하지 못할 일들도 해낼 수 있는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게 가족의 힘 아닐까 연극을 보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 왔다가 여기 불들어 매일까 봐! 어릴 때부터 만날 주방에서 살았는데 영영 그렇게 될까 봐!

- 둘째



“  
김규환 최근 차를 새로 살 일이 있어서 아버지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좀 더 적당한 차를 사기를 원했고, 저는 젊었을 때 한번 좋은 차를 타보고 싶어서 가격대를 높게 잡았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안 맞아 조금 언성도 높아졌지만, 결국 저나 아버지나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적당한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가족 간의 갈등은 발생하면 확실히 골치 아픈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해결하면 그 누구보다 사이가 좋아진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극을 보면서 가족들과의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소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표현을 잘 못 해도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도요. 저 역시 앞으로 가족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언니가 미안해.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해서.

- 셋째



“  
정희창 어머니가 굿판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진짜 굿을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진짜 무당을 부르지는 못하고 딸의 친구에게 무당 역할을 하게 해 가짜 굿판을 벌인 사실을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자식들의 정성에 모른 척하고 있었음을 마지막에 얘기하는 장면에서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가족’도요. 저에게 가족은 집 같은 존재거든요. 물리적인 집이 있더라도 가족들이 없으면 그 집은 ‘집’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만 있으면 어디든 ‘집’일 수 있는 것이죠.”

몸에 난 상처 곪으면 쥐어짜고 약이라도 바르지.  
마음 곪으면 무슨 수로 쥐어짜고 약 발라줘.

- 아내



“  
이혜미 최근 어머니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영화가 끝난 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우산을 구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산을 양보한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만리향>을 보고 난 후였기에 가족에 대한 애함과 이해심 등이 한층 넓어진 상황이었죠. 한 발자국 물러나 어머니를 바라보니 많이 베푸시고 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그 덕분에 어머니를 이해해 화해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곧 가야 한다.  
배 안 고파도 밥은 꼭 먹어. 알았지?

- 유숙



“  
이교영 연극을 통해 가족에 대한 시선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가족을 ‘당연한 존재’라고 여겼다면, <만리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가족이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 관계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연극이라는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연극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 업보가 당신이고,  
당신 업보가 우리였구려.  
그래도 어째요, 그게 가족인포.

- 어머니

“  
정희창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머니의 의견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은퇴하신 어르신 이 되셨고, 사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저보다 더 많아지셨으며, 병원도 혼자서는 잘 가지 못하세요. 질병으로 인하여 서울의 병원에 갈 때도 제 차로 항상 모시고 간답니다. 그럴 때마다 ‘보호자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구나’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께서 같이 가주시고 데리러 오고 하셨는데, 최근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이번 연극을 보며 어머니를 좀 더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사소한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영화 '헤어스프레이'를 보고 난 직후였다.  
배우들이 내뿜는 단어 하나하나에 음률이 섞여  
모든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접한 그때의 설렘을 잊을 수가 없다.



# 흥이 넘치는 그곳, 뮤지컬 속으로

LET'S GO



## 뮤지컬의 매력에 빠지다

영화가 아닌 극장에서 처음 본 뮤지컬은 <웃는 남자>였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알려진 박효신 배우의 '그 눈을 떠' 넘버를 직접 보고자 서울까지 짐을 챙겨 올라갔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람들이 극찬할까 기대감에 부풀 그때. 아뿔싸! 표를 잘못 예매해 다른 배우의 극을 보게 됐다.

실수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경우였을까. 처음 보는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에 내 마음을 오롯이 빼앗겼다. 웅장한 무대가 이리저리 전환되는 모습은 보는 즐거움을 넘어 경이로웠고,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선율이 고막과 심장을 두들길 때 느꼈던 감정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격렬하게 춤추며 연기하고 노래하는 배우들을 보면서 '정말 초인적인 사람들이다' 하고 감탄했다. 극이 끝나고 난 후 앞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뮤지컬을 보겠다고 마음먹었다.

## 돌고 도는 회전문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하늘 아래 같은 공연은 없다.' 똑같은 공연에 똑같은 배우여도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같은 극을 여러 번 보는 사람을 '회전문 관객'이라고 칭한다. 다른 문화생활에 비해 값비싼 뮤지컬을, 그것도 같은 극을 계속 보는 사람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요소들이 느껴지면서 회전문의 참맛(?)을 알아버렸다.

배우가 무슨 대사를 말할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날그날 느껴지는 호흡, 소리, 감정선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사로잡혀, 극이 마무리되면 다음 공연 날짜를 잡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회전문 관객이 도파민 분비를 최대치로 이끌어 내고, 통장 잔고는 최저치로 만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만 그 재미를 놓칠 수는 없었다.

## 나도 뮤지컬 배우!

뮤지컬 관람을 즐기던 중 불현듯이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바로 실행에 옮겨 레슨을 신청했다. 막상 시작하고 나니 큰 연습실 안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와 연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쭈뼛대며 움직이는 나에게 할 수 있다며 칭찬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하루하루

성장해 갔다.

그러다 사람들과 다 같이 어울리며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뮤지컬에 관심이 많은 사우들을 구해 선생님께 단체 레슨을 요청드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을 배워볼 기회를 얻었다. 각자 하고 싶은 배역을 찾아 퇴근 후 열심히, 또 즐겁게 레슨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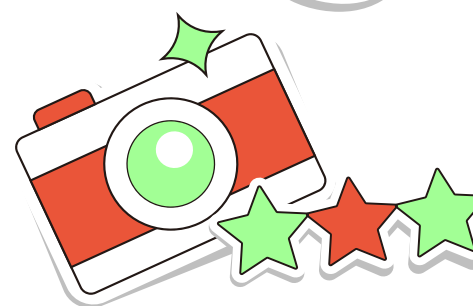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연습실에서만 큼은 다 사라졌고, 마치 뮤지컬 배우가 된 것처럼 다들 그 배역에 몰입하는 모습이 감명 깊고 몽클했다. 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대에 서지는 못했지만,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놓은 추억은 아직 모두에게도 깊게 남아 있는 것 같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눈이 마주치면 그날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말이다.

## 뮤지컬 동아리 결성!

혼자 뮤지컬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즐거운 감정을 공유할 누군가와 함께하는 건 더욱 좋은 일이다. 대부분 공연이 진행되는 서울까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나누고, 관람을 마치고 나서는 서로 즐거웠던 부분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는 현실에서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다는 일은 참 감사하다. 관람을 넘어 다 같이 뮤지컬 공연 연습을 하고 무대에서 보는 활동도 계획 중인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겨 하루하루가 활기차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게 지겹다면 노래와 춤, 연기로 가득한 환상의 나라 뮤지컬 속으로 발을 담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WOW



## 낡음과 아름다움의 공존, 문래예술촌& 영등포전력지사

문래동, 정확히는 문래창작촌의 골목골목은 핫플레이스라기보다는 치열한 삶터에 가깝다. 쇠를 깎는 공음, 낡고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서 땀 흘리는 작업자들. 거칠고 투박하고, 어쩌면 절박해 보이는 풍경에 힙한 예술이 입혀진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라고 한다. 철공소 골목 사이사이에 힙한 상점들과 그래피티 벽화, 조각작품 등이 묘하게 어우러져 공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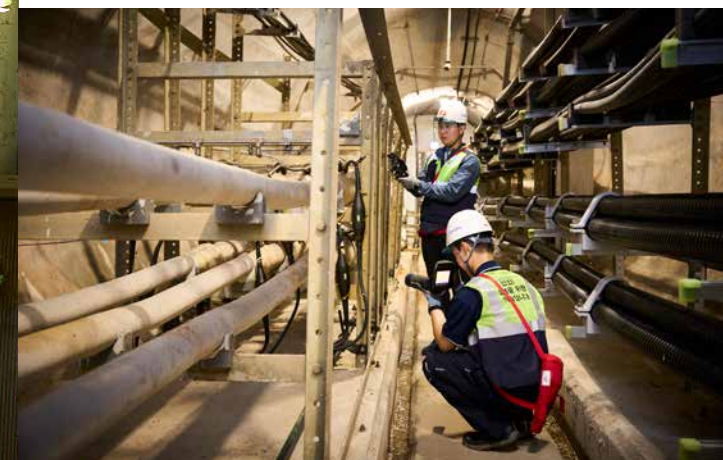
### 근대의 역사, 예술을 덧입다

문래동의 지명은 실로 옷감을 짜는 물레라는 기계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다. 이름대로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대규모 방적공장이 들어섰던 곳이다. 1960~70년대에는 청계천 철공소들이 문래동으로 이전해와 밀집했고, 다양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골목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90년대 말, 철강산업의 기계화로 철공소들이 문을 닫거나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빈 철공소가 늘어났다. 그 빈자리를 예술인들이 채우면서 삭막한 거리에 예술이 덧입혀지기 시작했고, 힙한 카페와 상점들이 생겨나면서 70~80년대의 아날로그적인 삶터와 예술적 트렌드가 공존하는 독특한 거리로 거듭났다. 장인의 투박한 손끝에서 나온 쇳덩이조차 예술작품처럼 운율을 이루며 쌓여 있는 문래동 철강골목에서는 삶이 곧 예술이 되는 듯했다.



문래예술촌 골목 풍경.



영등포전력지사 사무원들이 지중송전선로(1980년 준공된 천왕-오류T/L)를 점검하고 있다.



가공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는 영등포전력지사 사무원들.

### 중요하며 오래된 설비들을 안전하게! 영등포전력지사

서울 서남부지역과 경기 광명, 부천시 일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영등포전력지사는 디지털단지, 데이터센터 등 IT, 지식산업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공항, 지하철, 방송국 등 정전에 민감한 고객이 많다.

주요 설비로는 인천과 서해안발전단지, 수도권을 연계하는 345kV 신광명변전소가 있다. 이는 현재 수도권 유일의 옥외철구변전소로 2026년까지 옥외GIS형 변전소로 탈바꿈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OF(Oil Filled) 케이블 중 최장기간 운영 중인 154kV 천왕-오류T/L(1980년 준공)과 345kV 이상 XLPE(고체절연) 케이블 중 전사 최초의 345kV 신광명-신문래T/L(2003년 준공) 등 영등포전력지사는 중요도가 높고 노후도가 심한 설비들이 많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등포전력지사의 송전선로는 대부분 지중에 매설되어 있지만, 가공으로 이뤄진 송전선로도 운영하고 있다. 민가에 근접한 선로로 인하여 전자파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낮은 지상고로 인해 중장비에 의한 고장이 상존하여 업무 담당자는 늘 긴장 속에서 비산물 제거활동, 특별점검활동 등 고장예방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첩탐점검, 수목-전선 간 이격거리 측정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영등포전력지사는 오래된 설비, 전사 최고 수준의 지하(복합) 변전소, 다수의 민감 고객, 외물접촉고장 우려 등 업무적으로는 까다롭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방진단, 설비점검, 설비보강 등 무고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주어진 일상에 정성을 다한다.



## 꿈꾸기 좋은 찬란한 날들

### 대구본부 에너지효율부 채민기 대리

대구본부의 F4 중 한 명이라는 채민기 대리. 깔끔하고 선한 인상 덕분에 잘 알았으나, 알고 보니 뛰어난 업무능력이 그 이유라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전문가로서 업무매뉴얼 제작은 물론, 사내 강사로 출강도 하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자.

### 계절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더위가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던 8월의 어느 날, 미리 재킷을 꺼내 입은 채민기 대리를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가을의 시작인 9월호 표지 촬영을 위함이다.

“제가 유연한 편이 아닌데, 포즈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요?” 화려하고 다채로운 모델들의 시안을 보고 걱정이 밀려오는 듯하다.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는 사진작가의 말에 힘을 얻어 차근차근 하나씩 포즈를 취해본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고 했던가. 총 세 벌의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점점 표정과 동작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다양한 포즈를 취해보는 것이 처음이라 정말 재밌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 한 뼉씩 성장하는 순간들

신재생에너지 계약 업무는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업무 분야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잦은 편이라, 발전사업자 응대를 위해서는 항상 법규와 내부규정을 공부해야 한다. 민원이 심한 편인 것도 업무가 고된 이유 중 하나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능숙한 모습인 채민기 대리도 입사 초에는 업무가 어렵고 힘들어 퇴사 의사를 밝힌 적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주변에서 붙잡아준 덕분에 회사도 잘 다니고, 결혼도 하고, 사보에도 나올 수 있었다고.

그만큼 고생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더욱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채민기 대리. 전력구입계약(PPA) 업무 단독방에서 사우들의 궁금증에 대해 하나씩 답변하다 보니 정확한 근거가 필요해 부지런히 공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이 쌓이며 나름의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자양분이 되어 스스로를 성장하게 한 것이다.

자신의 강의나 업무매뉴얼을 통해 도움을 받은 직원들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게 뿌듯한 순간들이 어려운 업무를 이겨내는 힘이 된다고.

누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 순간을 하나쯤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 거창하지 않아도 소박하게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말이다. 그러한 시간들로 빠르게 채워질 찬란한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자신의 길을 조심스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 보자.



# #INSTAGRAM

이 코너는 KEP-CN과 KEPCO-EPA일소 소식에서 발췌하여 꾸며졌습니다. 사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군산지사



우리 지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가구에 선풍기, 위생용품, 식료품 등을 지원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마음을 모은 러브펀드 기금으로 마련했다. 이 상기후 현상으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 앞으로 우리 지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원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군산지사 #집중호우 #침수피해 #생필품 지원 #이상기후 #러브펀드 #나누는 기쁨 #소중한 마음

## 경기북부본부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 우리 본부는 에너지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여해 우리 회사의 에너지 효율 관련 사업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시행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사업, 에너지캐시백 등을 홍보하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렸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경기북부본부 #에너지의 날 #에너지효율 사업 홍보 #소중한 에너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_센스

## 강릉지사·동해지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건강! 강릉, 동해지사는 강원도한의사회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16년 MOU 체결 이후 9년째를 맞고 있는 봉사활동으로, 올해는 800여 명의 주민들에게 한의 의료 진료를 시행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강릉지사 #동해지사 #강원도한의사회 #한의의료 봉사활동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만들기

## 경남본부



우리 본부는 경남도청, (주)우시산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을 위한 폐자원 업사이클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년 버려지는 수천 개의 안전모를 파쇄, 사출하여 새로운 경량 안전모로 업사이클링할 계획이다.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경남본부 #경남도청 #(주)우시산 #업사이클링 #폐안전모 #다시 태어난 안전모 #일석이조

## 전력기자재센터



우리 센터는 베트남 봉양2 발전소 보호시스템의 현장진단과 기술지원을 시행했다. 이는 1,200MW급 화력발전소로 2025년 6월부터 베트남 북동부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지원에서는 발전소, 변압기 등 주요 설비의 보호시스템을 진단하고 시공, 세팅 부분에서 오류사항과 설계 문제점의 개선사항을 컨설팅했다. 앞으로도 전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 발전소 기술지원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력기자재센터 #전력계통시험부 #베트남\_봉양2 발전소 #보호시스템 #기술지원 #컨설팅

## 서부산지사



Safety First! 우리 지사는 부산119 안전체험관에 방문해 체험 교육을 수료했다. 전기안전, 도시재난, 생활안전, 구급출동119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 배전공사 분야 외에도 일상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하며,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서부산지사 #부산119 안전체험관 #체험교육 #안전사고 예방 #대처방법 익히기 #Safety\_first

원고 사전 보내실 곳 eunseon.yang@kepco.co.kr  
문의 061-345-3128

## 송변전건설단·광주전남건설지사



송변전건설단과 광주전남건설지사는 주요 송변전 건설사업 경과지 마을인 장성군, 신안군 농어촌 마을을 찾아가 말북 맞이 '행복+ 건강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시행했다. 역대급 폭염으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보양음식을 대접해 건강과 행복을 선물해 드렸다. 자주 그리고 가깝게 소통하며,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송변전건설단 #광주전남건설지사 #송변전 건설 사업 경과지 #말북 #삼계탕 #든든한 보양식

## 서울본부



우리 본부는 전력산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핵심 안전행동수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간접활선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본부 #산업재해예방 #고용노동부 #표창 수상 #안전행동수칙 #간접활선 트레이닝 센터

# KEPCO NEWS

2024. 09



## 신사업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한전은 7월 25일 사장, 경영진, 본사 처·실장, 그리고 외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업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신사업 추진 아이템과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해 자문과 토론을 시행했다.

한전 신사업자문위원회는 에너지신사업·신기술 관련 최신 경영·기술 전략 및 산업 트렌드 관련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신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능형디지털발전소(IDPP)·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ADMS)·변전설비 예방진단 시스템(SEDAS) 등 5대 핵심 신사업을 포함한 총 30개의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발표에 이어, 자문위원들의 의견 제시 및 참석자 전원의 집중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송변전·배전·BTM·ICT플랫폼·해외신사업 부문의 사업추진 모델·방안 등에 대한 참석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함께 신기술 개발·사업화 및 법·제도 개선 관련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4달 만에 약 650MW 고객 확보

한전은 올해 4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이후 현재까지 44호(650MW)의 고객을 확보했으며, 본격적인 제도 운영으로 광역 정전 예방과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

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하여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이며,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이 약 82%로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아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kV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으로,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고객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보상 방안으로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중용량(직전년도 월평균 부하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kW·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용량(실제 차단 당시 부하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8,400원/kW·1회)이 있다.

현재 다수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전은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동철 사장은 자문위원 대표로 김희집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에 대한 전문 식견을 갖춘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 한전은 신사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의 내부 시각과 관점을 뛰어넘어 신사업 추진 방향성과 전략을 보다 구체화·정교화하고, 기술사업화 우선순위 설정, 대외 네트워크 형성 등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외부 자문위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전력 데이터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정책 지원 나선다

한전과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을 위해 8월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물가 및 고금리의 지속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전·중기중앙회·KCB 3사가 협력하여 국가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 혜택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전·중기중앙회·KCB 3사는 각 사가 보유한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현행 금융시장에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못했던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분야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상반기 연결기준 2.5조 원 영업이익

한전은 연결기준 상반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43조 7,664억 원, 영업비용은 41조 2,168억 원으로 영업이익 2조 5,49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조 9,99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매출액은 요금조정 등으로 2조 5,499억 원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연료비, 전력구입비 감소 등으로 8조 4,497억 원 감소한 데 기인한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23년 세 차례 요금 인상과 연료 가격 안정화로 4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나, 분기별 영업이익 규모는 감소했다.

최근 중동 분쟁 지속, 고환율 등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전은 국민께 약속드린 자구노력을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전력구입비 절감 등 전기요금 원가 감축을 통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전·iM뱅크, 전력 데이터 활용을 통한

## 금융거래 신사업 모델 발굴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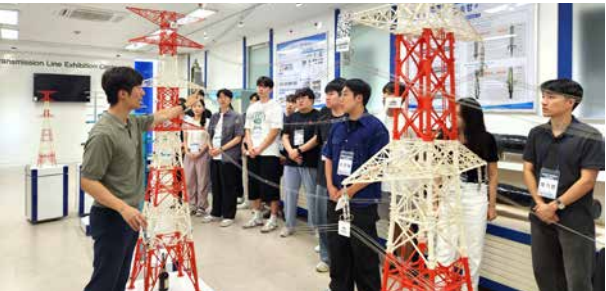
한전은 iM뱅크(舊대구은행)와 7월 30일 대구 iM뱅크 본점에서 ‘AMI 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전이 개발한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 데이터 기반의 ‘경영상태 예측 모델’을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기업의 경영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는 최초 사례다.

‘경영상태 예측 모델’은 기업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영 관련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건전성 평가와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서비스다. 전력 사용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면 기업의 경영상태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장 방문 없이도 이상징후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견고해진 신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iM뱅크와 올해 8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데이터 유의성과 예측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 후 다른 금융기관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한전은 전력사용 데이터의 분석력을 높이고, AMI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창출형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iM뱅크는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원년을 맞이하

여 경영상태 예측 정보 활용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선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력기술분야 미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 ‘Energy Summer Academy’ 시행

인재개발원은 지난 8월 8~9일, 2일간 전국 전기전자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전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계통 운영기술과 송배전 전력설비 이해도 제고를 위한 ‘Energy Summer Academy’를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인력양성 산·학 클러스터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전국 28개 대학교 중 4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인재개발원장의 ‘전력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강의로 시작하여 송배전 실습설비 견학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력설비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3회 ART FOR GREEN 전시회 개최

‘제3회 ART FOR GREEN 전시회’가 9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주간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한전갤러리 1, 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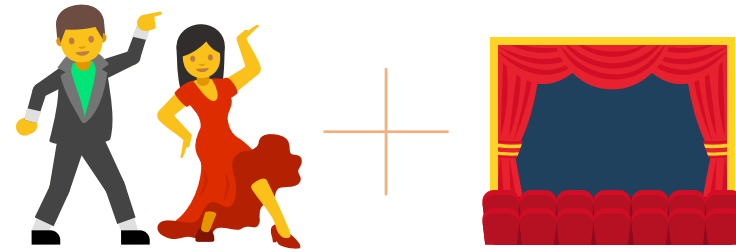
유한성을 모티브로 하여 에너지의 가치와 소중함을 표현하고, 미니멀리즘을 통해 덜어내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기 위한 이번 전시회는 공모로 선발된 작가 5인의 단체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 01 이모지 뉼센스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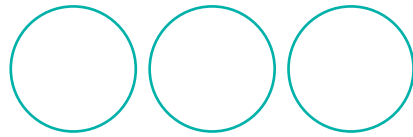
퀴즈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int. 40~41쪽 'K-CREATOR'에서 동아리를 결성할 정도로 필자가 푹 빠진 이것은?

다음 이모지를 보고 정답을 맞춰 주세요!



정답



## 02 퀴즈 당첨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           |           |           |           |           |
|-----------|-----------|-----------|-----------|-----------|
| 공*선(4766) | 이*우(7460) | 최*인(4346) | 김*숨(6212) | 김*경(8033) |
| 인*주(2533) | 이*석(0089) | 이*호(2883) | 권*희(3616) | 배*을(0404) |
| 김*수(0805) | 정*일(0627) | 채*웅(5456) | 윤*덕(4361) | 전*경(1656) |
| 박*현(2427) | 고*수(2872) | 양*민(0021) | 정*희(6740) | 이*정(6909) |
| 전*지(6501) | 주*환(5453) | 정*호(2822) | 홍*영(2442) | 황*호(5838) |
| 이*호(4629) | 정*철(0733) | 조*호(7462) | 김*모(0266) | 임*혁(3575) |

## 03 지난호 정답



#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ENERGY SENSE CAMPAIGN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